오늘의 이념문제와 과제

제1장 오늘날의 우리사회 실태

편저자=남구희

※농림수산부 농업교육원 교재에서

한편 좌경운동권에서는체제보다 조국통일의 실현가치를 우위에 두고 통일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초법적행위도 용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북으로가자」「이북학생과 대담해야한다」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길인줄 착각하고 있다.

이북 김일성집단은 한반도가 적화아닌 민주통일이된다면 그동안 우상화하고 온갖 거짓과 철저한 감시하에 지배하던 모든것이드러나 발붙일 곳이 없기때문에 공산적화망상에 사로잡혀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민중론자들의 통일론은 혼란을 가져올뿐 이로울게없다.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데 정부를 제치고 법을 무시하고 통일이다 대담이다 하는 것이 어느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남북이 분단된채 영원히 분리되어야 옳다는 말인가 하고 항변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같은 나라가 외세에 못이겨 할수없이 분단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것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를 갖는것이 되므로 조국의 통일은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문제를 비롯한 경제, 문화, 체육등의 회담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신뢰를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 통일을 앞당길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공산집단이기도하는대로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에대하여는 사람에 따라 여러[illegible]지 추측을 할 수 있으[illegible]나 이북도 사람사는 곳[illegible] 나라가 통일되면 현[illegible]다도 나을 것이라는 추[illegible] 현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수있는 곳일 것이란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으리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 혹자는 공산캄보디아등의 경우등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세를보면 우리는 공산 캄보디아나, 공산 월남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더 많은 희생이따를수도 있을 것이란 짐작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월남은 1975, 캄보디아는 1979년에 공산화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10~14년전의 일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나 월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적었고 월남은 우리와 같은 남북의대결기간이 짧았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못살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우리보다 익숙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북의 김일성 정권은 마르크스·레닌이 제창한 공산주의라 하기보다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에교화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산주의에서도 이질적인 무서운 집단으로 김일성 우상화에만 일관 되어온 체제이다. 불합리와 모순이 크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철저한 사상주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인과 대화할 때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하며, 라디오는 평양방송하나에만 채널을 고착시켜 외부세계와 단절시켜 놓고있으며, 신문은『로동신문』『평양신문』『민주조선』등이 있으나 이것이 정녕 신문인지, 신문이라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뉴스를비롯한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데 『김일성 수령께서…을 교시하셨다』『얼마를 생산했다』『…목표를 달성했다』『위대한 수령께서○○대통령을 만났다』는 등 정권의 선전물에 불과하다.

『김일성 어버이께서 교시하신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를 신조로하여 모든국민이 김일성 뺏지를 달고 『김일성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학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3만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정에까지사진을 걸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며, 어린이도 학용품까지 김일성 아버지가하사하신 것이라고 반복하여 감사하는등 철저한 우상화를 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북 공산주의가 남한을 적화했을 때 우리와 쉽게 융화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오랫동안 자유를 누리며살아온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적응하지도 못할 것이며, 문제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 섬뜩에 완전히 맞지 않는 자는 숙청하지않고는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란짐작은 어렵지 않다. 좌경운동등 이들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은 그들에게 잘 수용되어 별 문제가 없을것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전략전술에서 보듯 소위 혁명과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이용당할 것이나 그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말많고 불평많은 존재로 전락될수 있을 것이란 짐작은 공산주의의 생태에서부터 알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공산화된 월남이나 캄보디아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날 그날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계층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정처없는 망망대해를 탈출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모든 나라가 정치적 또는전쟁난민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구조는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난민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들 소위보트피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에서는 필사적으로 상륙하려는 난민을 향하여발포를 하면서 막았다. 많은 이들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구제한다면 더 많은 월남인들이 끝도없이 몰려올것이며 그외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딱하고 절박함을 알지마는 이를 구제한다고 나설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은 인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유엔이나 선진국, 이밖에성직자, 박애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법상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인도상 받아들였을 때 전례가 되어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이 밀어닥쳐 혼란과 불행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제주도에 상륙한 월남난민단 79명을 물리친 결과 해상에서 배에 불을 지르고 모두가 자살을 기도한 슬픈 실례를 보지 않았던가(그 뒤에 구조 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을 가져온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독일 등 네나라가 있다.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은 각각다르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단되고 있음은 공통적인현상이다. 월남은 이미 공산화되었고 자유중국은 오래전(1949년)에 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옮겼으며, 독일은 동·서의 장벽을 허물고자유왕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남·북의대결이 계속되어 긴장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소련, 중국, 동구공산주의 국가들이 점차 개방화 되어가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큰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6·29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각계각층의 욕구는 그동안 내제하고 있던것이표출되어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모순된 이념의 대두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있다.

좌경민중론자들의 투쟁목표, 방법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체제를 부정하고 민중에 의한 민중민주주의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것으로 이것이 민주화의 길이요, 또한 민중이 직접남북문제를 협의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민중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마르크스가 세운 공산주의기본이론과 근래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행했던 좌경과격사상(네오(新) 마르크시즘, 신제국주의론, 종속이론, 매판자본론, 해방신학등)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는 좌경과격사상 형성에 영향을주었고, 마르크스사상과 좌경과격사상은 또한 지금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민중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계 속>

連載 栽培教室

'90 新規會員을 爲하여

백 지 (白芷 : 구릿대)

生藥名 : 白芷
藥用部 : 뿌리
成分 : 안게리토키신, 바구안게미신, 바구안게리골등을 주로 하는 精油이다.
效用 : 鎭痛藥으로서 感氣, 頭痛, 齒痛, 顔面神經痛등에 사용되며 담배製造香料로도 사용된다.

1、性 狀

미나리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각지 山野에 自生되는 2~3年生 草本이다. 키는 1·5m내외이고 잎은 세번 깃모양으로 갈라졌고 갈라진잎은 둥근꼴 또는 긴 둥근꼴이며 잎끝은 뾰족하고 잎가는 까실까실하다. 2~3年生 포기에서 7~8월에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複繖形 꽃차례의 작은 흰 꽃이 많이 모여 피고, 9~10월에 둥근꼴이고 그 兩側에 날개가 붙었고 뒤에 뚜렷한 두줄의 홈이 있는 엷은 黃綠色의 여윈 씨를 결실하며 開花 結實 후에는 그 뿌리가 썩어버린다. 生藥으로는 1~2年生으로서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뿌리를 쓰며 뿌리를 씹어 보면 대단히 독한 맛이 있다.

白 芷

2、栽培法

(1) 栽培 適地

우리나라 각지 山野에 自生하는 것으로 氣候上으로는 우리나라 山陜平野地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재배할 수 있으며 토질은 濕氣가 비교적 충분히 있는 壤土 또는 埴質壤土로서 비옥한 땅에서 가장 잘 된다.

(2) 繁 殖

種子로 번식하며 전에는 育苗移植法을 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비옥한토질에서 直播法에 의해재배하여 當年 收穫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直播法에 한하여 記述하기로 한다.

㉮播種時期 : 늦은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發芽率이 좋으나 이른 봄에 파종하여도 비교적 發芽가 잘 된다.

㉯播種量 : 10a에 대하여 9ℓ내외이다.

㉰播種方法 : 밭을 깊이 갈아서 이랑나비 45㎝내외 간격으로 골을 치고 씨를 줄뿌림으로 고르게 뿌리고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어준다. 발아가 잘 되는 것이므로 짚을 덮어줄 필요는 없다.

(3) 管 理

가을에 파종한 것은 4월 초순에 發芽가 되며 봄에 파종한 것은 播種후 20일 내외가 되면發芽한다. 밴 곳은 솎아주고 김을 2~3회 매어주고 가꾸면 7~8월경에는 잎이 무성하여 圃地를 덮게 되는데 최종 포기 사이는 12㎝에 1개 정도씩을 두도록 한다.

(4) 施肥·病蟲害

當年 收穫이 목적이므로 되도록 施肥를 충분히 한다. 당년에 뿌리가 굵지 않아서 수확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히면 다음 해에는 모든 뿌리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뿌리에 심이 생기어 즉木質化되어서 藥用으로 쓰지 못하게 되므로 白芷를 재배코자 할 때에는 되도록 비옥한 토질에서 충분한 施肥를 하여 당년에 뿌리가 굵어져서 비대한 뿌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施肥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밑거름으로서 堆肥 1천2백㎏, 過石 40㎏, 草木灰 80㎏을 시비하고 웃거름으로서 6월과 8월에 각각 複合肥料 40㎏씩을 골 사이에 施肥토록 한다.

病蟲害는 별로 없으나 봄 발아가 늦었을 때에 채소를 많이 심는 지방에서는 톡톡이 벌레가發芽되는 어린 싹의 물을 빨아먹는 被害가 있기도 하므로 이러한 지방에서는 되도록 가을에 심으므로서 봄 일찌기 發芽가 되어 톡톡이 벌레가 발생되기 전에 苗가 커져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봄 일찌기 發芽가 되면 發芽率도좋고 생육도 그만큼 빨라서 뿌리 收穫量도 증가된다.

3、收穫·調製

늦은 가을에 莖葉을베어 버리고 밭 한구석부터 쇠스랑등으로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깊이 찍어 캐어서 물에 씻어陽乾한다. 굵은 뿌리는 잘 마르지 않으므로 길이로 쪼개어서 말리기도 하는데 輸出하는 것은 쪼개지를 않는다. 8~9할건조가 되면 손질을 하여 뿌리를 가지런히 하고적당히 묶어서 다시 完全乾燥 調製한다. 收穫量은 乾根으로서 10a당 2백40㎏내외이고, 잘 되었을 때에는 4백㎏에 달하기도 한다.

〈1면에서 계속〉

서 실시하는 共同集荷場을 설치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대행할만한 民間生産團體는 아직 力不足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그렇게 희망을 해보는 것이다. 대략 4만여톤에 가까운 生藥材는 서울 경동시장에 40%, 대구에 15%, 부산에 10%, 제천에 20% 기타지역에 15%정도가 통상 流通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서울 경동시장만 보더라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한의원, 한약국, 약업사, 탕제원, 무역회사등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할때 한방업계의오랜 전통성과 관습을 무섭게 評價해야 된다고 본다. 78년과 80년대초 전후에는 1백개 이하이던 각종 한약건재상이 이제는 전부가 한약국, 한의원, 또는 약업사로 변화했고 89년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의원이 3백21, 한약국이 1백68, 약업사가 50, 탕제원이 44, 한약제분소 18, 무역회사 2, 기타 건재상 42개소등 6백24개업소였으나그동안 또 1백개소 이상의 한약업소가 증가되었다고하니 실로 서울경동시장은東洋최대의 한방업계 집산지라고 할수있으며 市에서계획하고 있는 근대화 시장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한방名所가 될것이멀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生産者는 長期的안목으로 계획生産과 선별生産에 인내와 근성으로서最善을 다해나간다면 시장번영과 共存하게 될것으로믿는다. 〈편집실제공〉

전국 2백29개 農協에 農産物 가공工場

5년간 575억투입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5년동안 모두 5백75억원을 투자, 전국 일선조합에 2백29개의 가공공장을 설치해 연간 3천억원상당의 농산물및 농자재가공품을 생산키로 했다.

23일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農協가공식품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91년에 55억원, 92년에 75억원, 93년에 1백5억원, 94년 1백45억원, 95년에 2백억원을 각각 투자, ▲김치 깻잎등 각종 절임류와 더덕 도라지등 건채류 가공공장 46개소 ▲民俗酒 메주 두부등 전통식품 가공공장25개소 ▲쌀도정및 쌀가공공장 80개소 ▲주스 고춧가루등 과채류 가공공장 55개소 ▲배합사료 [illegible]비료 PE필름등 농자재 가공공장 23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農協은 이를위해 사업주체인 회원조합이나 마을등에 가공시설자금의 50%를 보조해주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공장을 설립 운영토록했다.

農協은 융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운영자금은 5~8%의 저리로 중장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農協은 이들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에 가공사업지원단을 설치, 가공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장의 설치와운영을 지도해나갈 계획이다.